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17.5%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76.5로 전년동월대비 17.5% 감소 - 7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됨 ○ 서울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8.3%, 대형마트 6.5% 증가로 전체적으로 7.5% 증가 ○ 7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물가 전년동월대비 4.2%, 신선식품지수 전년동월대비 9.7% 각각 상승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3.2%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 ○ 7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2.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 ○ 서울의 고용률은 0.8%p 상승한 60.5%로 전국대비 0.5%p 차 ○ 서울의 실업률은 0.3%p 하락한 4.2%로 전국대비 0.9%p 차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북지역(-0.1%)은 용산구(-0.2%), 마포구(-0.1%)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하락 - 강남지역(-0.1%)은 강동구(-0.4%), 동작구(-0.2%)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하락 ○ 7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북지역(0.7%)은 노원구(1.4%), 중구(1.0%)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 - 강남지역(1.0%)은 강동구(1.9%), 강남구(1.8%)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40조 8,33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2,982억원(0.97%) 감소 ○ 서울의 7월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중 신설법인 수는 1,918개로 전년동월대비 3.7%(68개) 증가, 부도업체수는 45개로 전년동월대비 19.6%(11개) 감소 ○ 7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서울의 수출은 55.5억 달러, 수입은 105.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1.6%, 17.5% 증가 -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생 · 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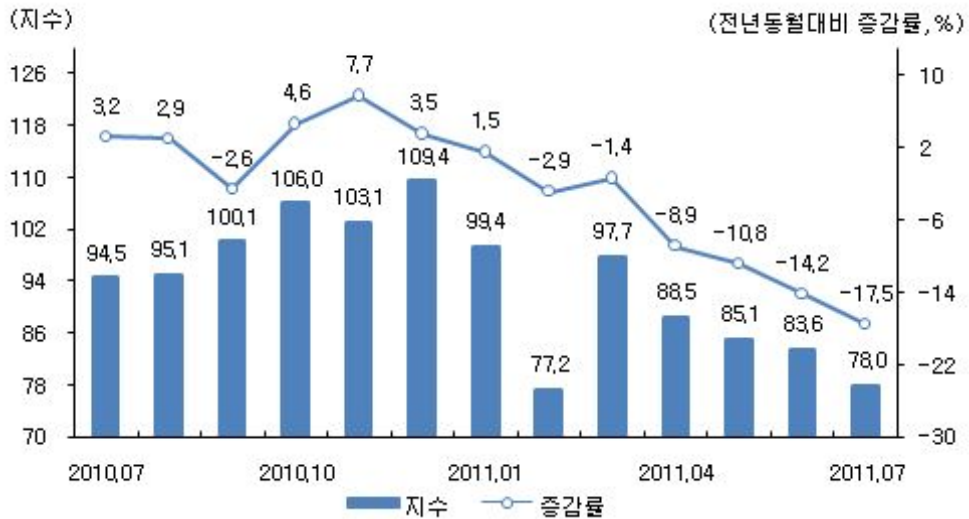
서울의 7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7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서울의 7월 산업생산지수는 76.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7.5% 감소
- 중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2.4%,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8% 감소
- 전년동월대비 인쇄 및 기록매체(2.8%) 증가, 그 외 의복 및 모피(-12.5%), 전기장비(-43.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25.3%), 기계장비(-23.4%)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공업 부문의 감소가 서울의 산업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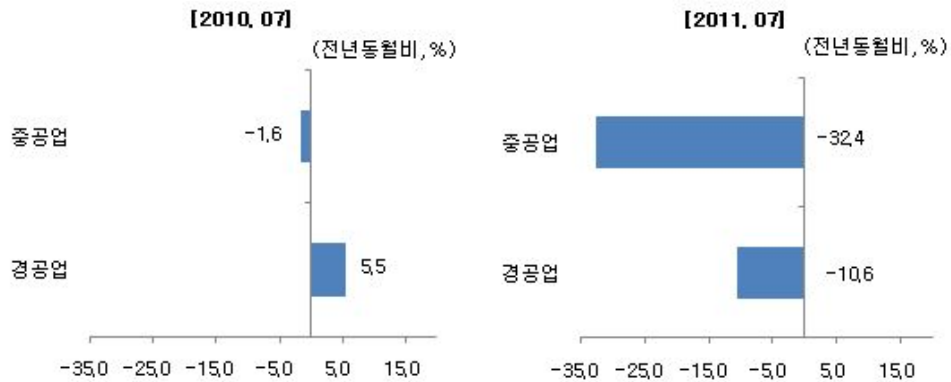
■ 전국의 7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7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전월대비로는 0.4% 감소
-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영상음향통신(-18.3%), 비금속광물(-5.6%) 등은 부진 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12.8%), 자동차(16.0%) 등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3.4%) 하수·폐기물처리(-5.1%)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7.6%), 도매소매(3.0%), 보건사회복지(5.0%), 운수(4.2%) 등이 증가하여 3.8%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출하 · 재고 순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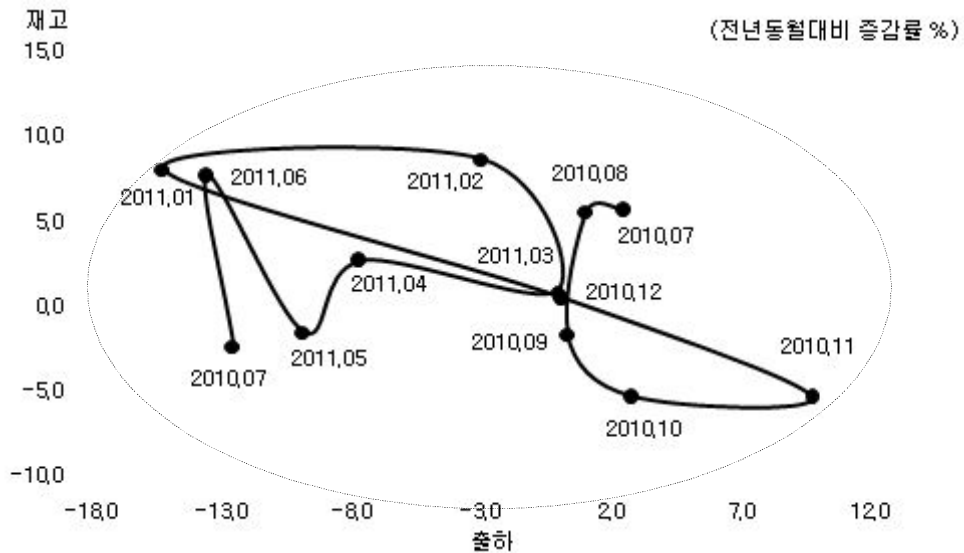
서울의 7월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의 7월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서울의 7월 재고지수는 155.7(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 전년동월대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재고감소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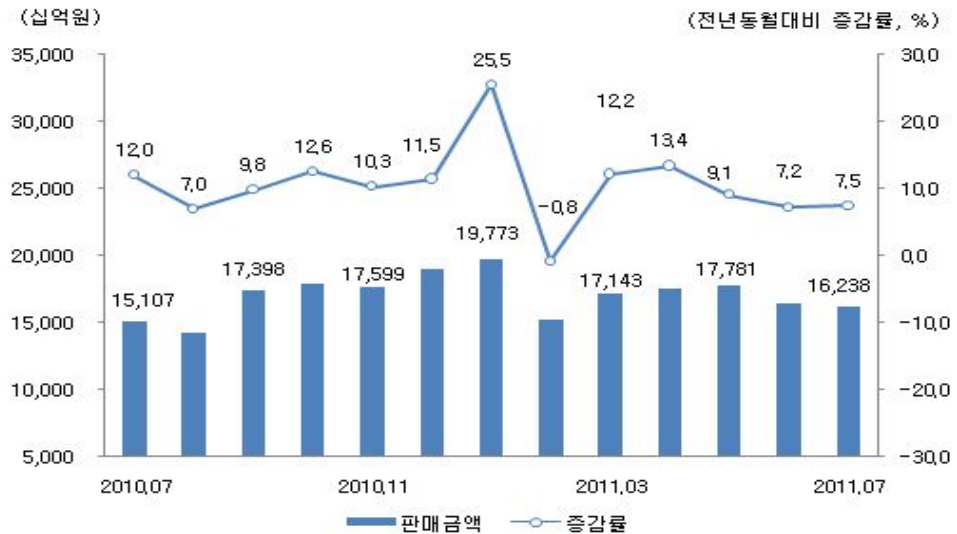
- 서울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6,239억으로 전년동월대비 7.5%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8.3% 증가, 대형마트 6.5%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정기바겐세일 등의 영향과 여름방학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 7월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중 패션용품이 1위

- 대형종합소매업의 판매액 1조 6,239억원 중 패션용품이 37.2%인 6천48억원, 식품이 32.3%인 5천245억원, 생활용품이 18.0%인 2천929억원을 판매
- 권역별로는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6.3%인 5천888억원을 판매하였고, 다음으로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2권역(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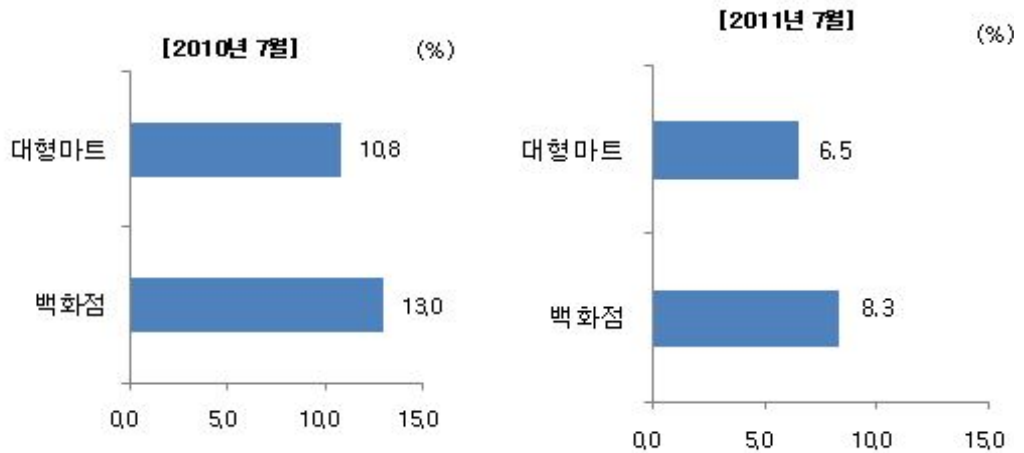
■ 전국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5조 953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 대형마트는 9.8% 증가
- 유형별로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의 내구재가 12.6% ,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4.0% 증가,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1%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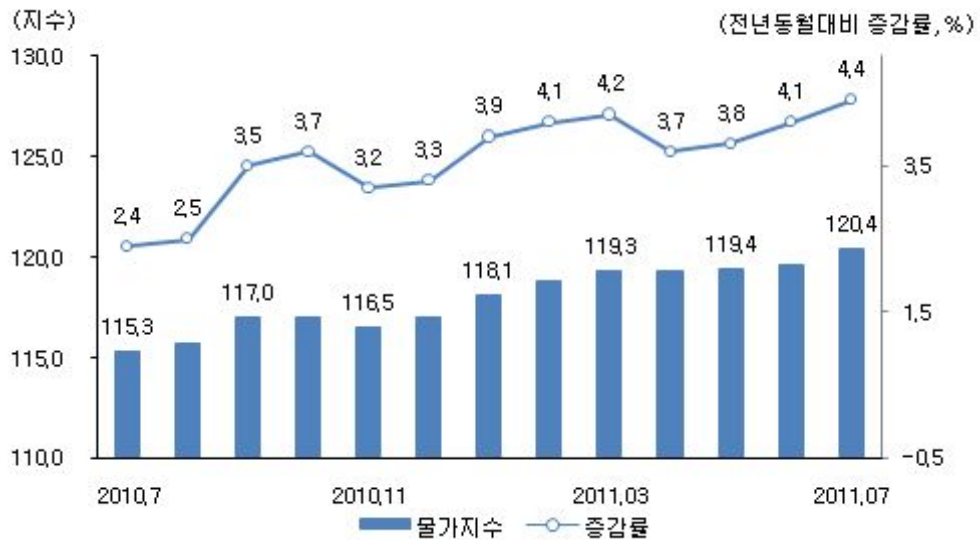
- 7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20.4(2005년=100.0)으로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4.4% 각각 상승
- 상품부문은 전년동월대비 7.3% 상승하였으며 그 중 농축수산물은 12.0% 상승, 서비스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하였으며 그 중 집세는 4.4%, 공공서비스 1.4%, 개인 서비스 2.7% 각각 상승

■ 서울의 7월 전년동월대비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4.2%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9.7%, 전년동월대비 9.7% 각각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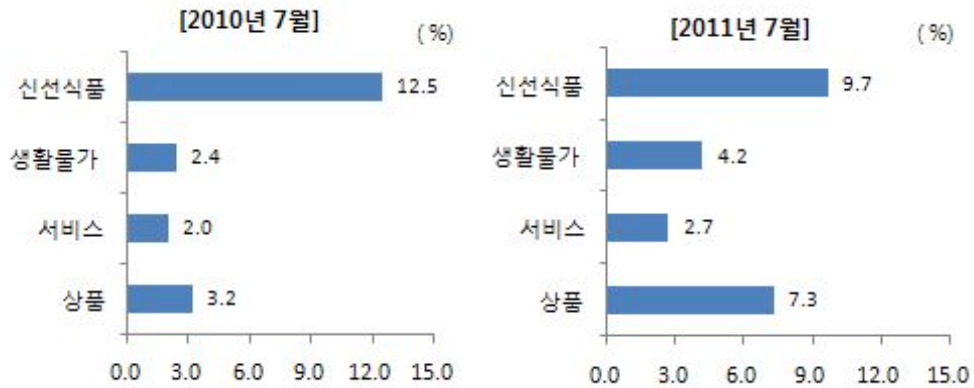
■ 전국 7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1.4(2005년=100)으로 전월대비 0.7% 상승, 전년동월 대비로는 4.7% 상승하여 7개월 연속 4% 대 상승세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8.1%, 전년동월대비 9.0% 상승
- 16개 광역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대구, 대전 등 5개 시도는 0.8~1.2%씩 상승하였고,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는 0.7%씩 상승하였으며, 강원, 충남, 제주는 0.4~0.6%씩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서울의 7월 신선식품 중 채소류를 중심으로 상품 가격 상승

- 소비자들의 생활필수 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채소류의 경우 평균 17.8% 상승, 양곡과 수산물의 경우 평균 2.0% 하락
- 채소류 중 배추는 33.5%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마늘의 경우 2.0% 증가하여 전반적인 채소류가 증가세를 나타냄
-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는 5.4% 하락한 반면 멸치는 2.2% 증가, 양곡류인 쌀은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전월대비, 원, %)

품목	 배추	 멸치	 마늘
가격	1,625원	2,41원	6,803원
전월비	33.5%	2.2%	2.0%

품목	 쌀	 고등어	 돼지고기
가격	44,853원	3,929원	4,127원
전월비	-2.7%	-5.4%	-31.6%

주 : 멸치(건멸치), 고등어(중품), 배추(가을(상품), 고랭지(상품), 봄(상품), 월동(상품)), 마늘(깐마늘(상품)), 돼지고기(박피 암)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림> 서울시 신선식품 중 상위 6개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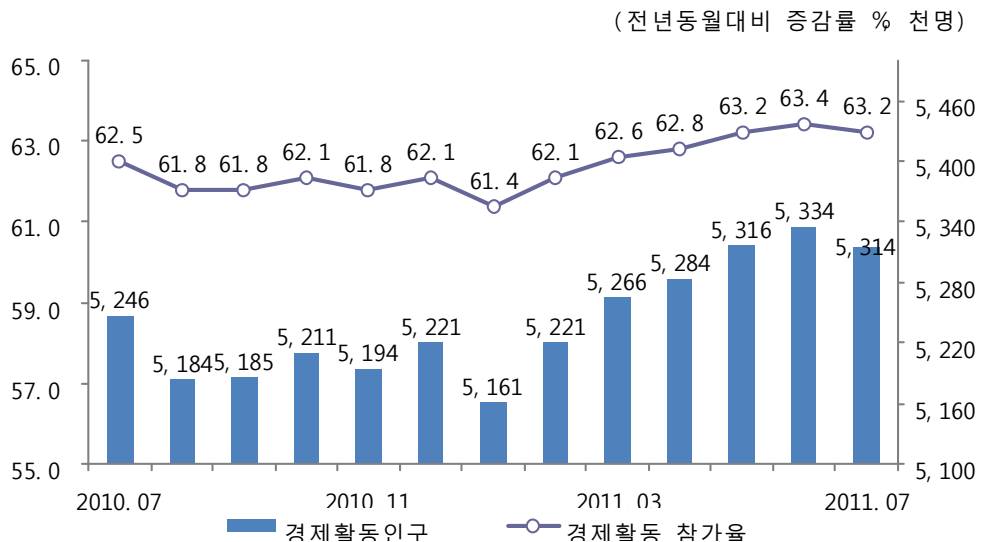
서울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7월 15세 이상 인구는 8,4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천명(0.2%)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3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8천명(1.3%)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3.2%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비경제활동인구는 3,0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1.6%)이 감소

■ 전국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7월 15세이상인구는 41,08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2천명(1.2%)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25,4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1천명(1.0%)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8%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자는 50.7%로 전년동월과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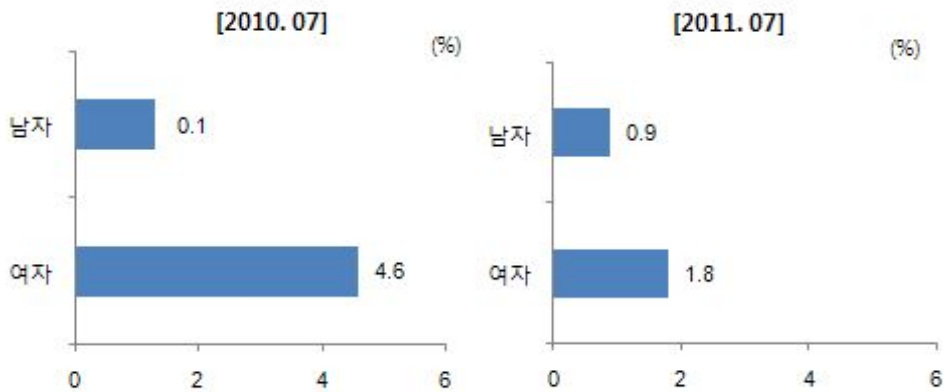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서울의 7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3,026천명, 여자는 2,2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9%, 여자는 1.8% 각각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4.3%, 여자는 52.8%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포함, 여자는 0.3%p로 각각 증가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인구 증감률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률

| 취 · 업 ·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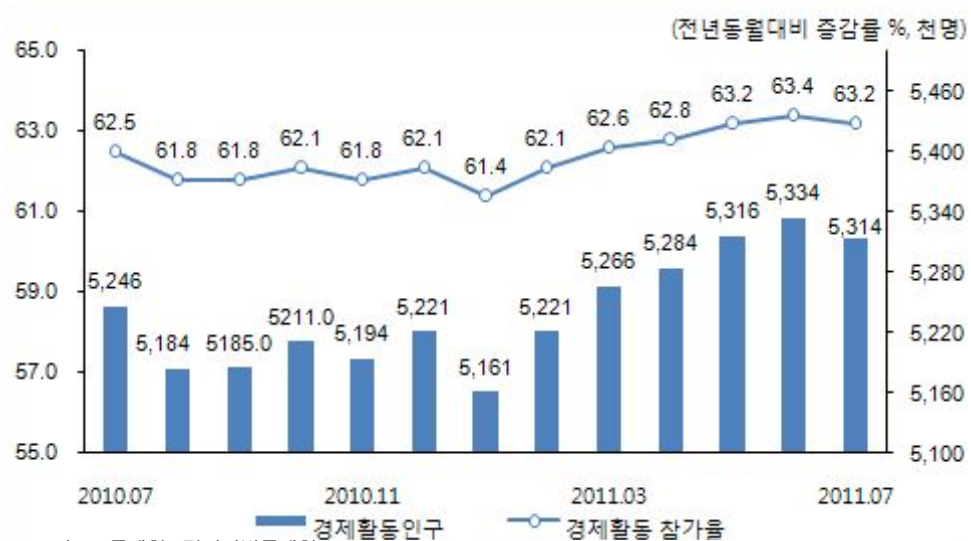
서울의 7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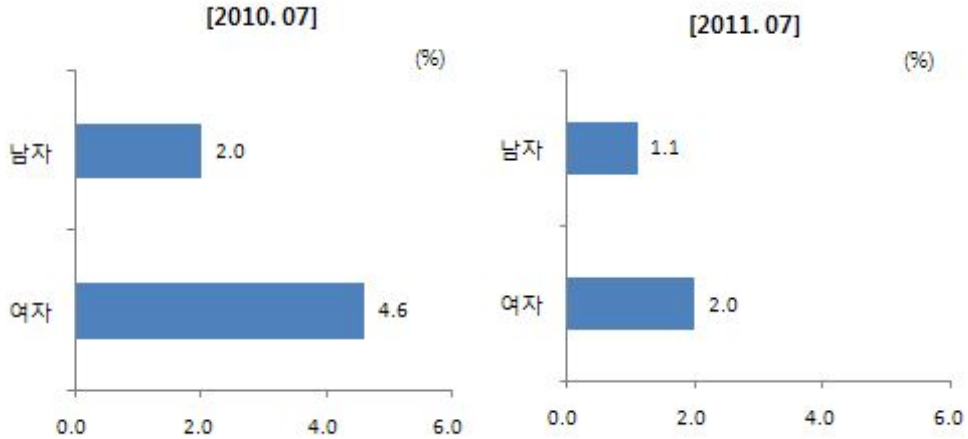
- 서울의 7월 취업자는 5,08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천명(1.5%)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80천명, 여자는 2,2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2천명(1.1%), 여자는 44천명(2.0%)이 각각 증가
- 서울과(1.5%) 전국(1.4%)의 취업자 수는 0.1%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7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7월 취업자는 24,63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5천명(1.4%)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29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6천명(1.2%) 증가하였고, 여자는 10,345천명으로 160천명(1.6%) 증가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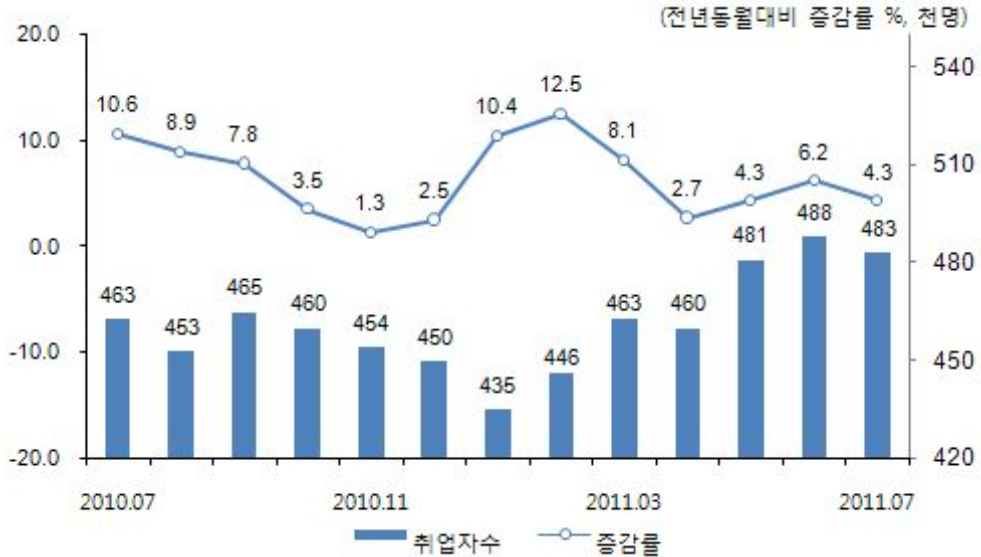
■ 서울의 7월 청년층(15세~29세),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수 증가

- 서울의 7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 증가
- 서울의 고령층(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이상) 추이

■ 산업별로 농림어업, 건설업, 제조업 각각 감소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2천명(6.7%),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 52천명(2.7%), 도소매·음식숙박업 29천명(2.2%)이 각각 증가
- 농림어업 1천명(-16.4%), 건설업 33천명(-8.3%), 제조업 23천명(-4.2%)은 각각 감소

■ 직업별로 사무종사자, 관리자·전문가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134천명(15.5%), 관리자·전문가 2천명(0.1%)이 각각 증가
- 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10.6%),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56천명(-3.8%), 서비스·판매종사자 4천명(-0.3%)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14천명(-1.4%), 무급가족종사자는 14천명(-7.8%)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188천명(8.9%)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66천명(-5.2%), 일용근로자는 17천명(-3.8%)이 각각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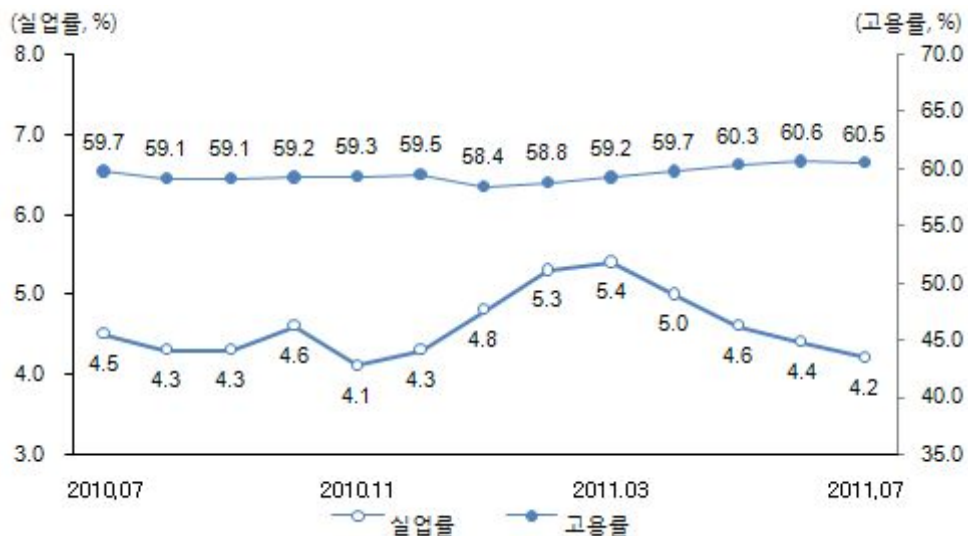
서울의 7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 서울의 7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7월 고용률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7%, 여자는 50.9%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0.7%p, 0.8%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과 0.5%p 차이

■ 서울의 7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7월 실업자는 22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3.5%)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6천명, 여자는 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천명(-2.9%), 여자는 4천명(-4.8%)이 각각 감소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전국대비(3.3%) 0.9%p 차이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8%, 여자는 3.5%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모두 0.2%p 각각 하락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하락

■ 서울의 7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0.2%로 3개월 연속 하락 가운데,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0.1% 상승하였고 연립주택은 0.1% 하락

■ 전국의 7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에 이어 공급물량 부족과 매수심리 호전 등으로 각각 0.8%, 0.9%로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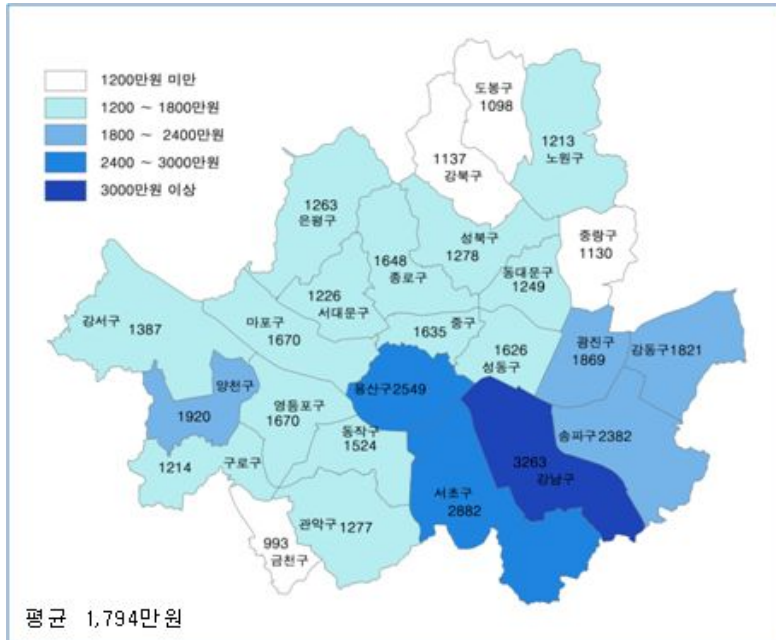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광진구를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가운데, 용산구와 마포구는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하락**
 - 광진구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아파트는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소형의 저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상승
 - 용산구는 주택거래 부진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전월대비 0.2% 하락
 - 마포구는 계절적 비수기와 휴가철을 맞아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의 소형 주택도 거래가 둔화되며 전월대비 0.1%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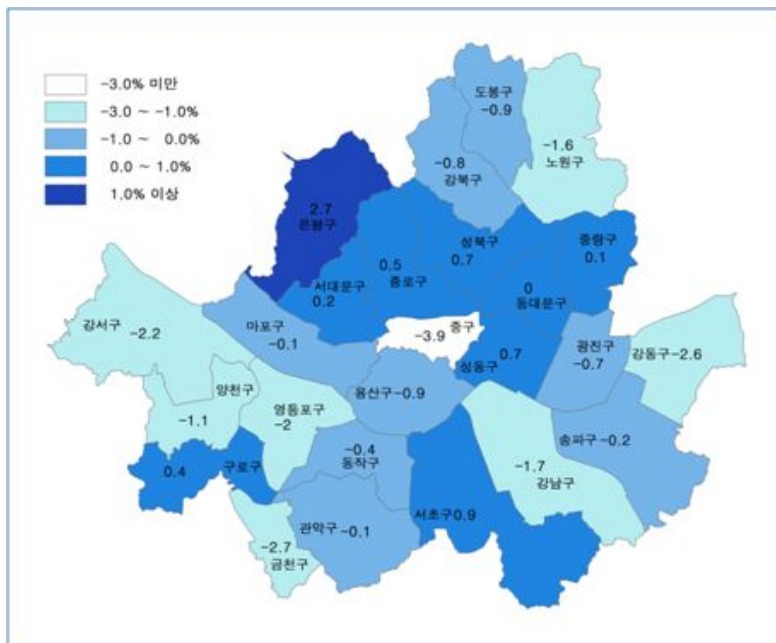
- **강남지역은 아파트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강동구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0.1% 하락**
 - 강동구는 재건축 아파트와 보급자리지구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급자리지구 지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수세가 둔화되며 전월대비 0.4% 하락
 - 동작구는 부동산경기 불확실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중·대형 주택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대비 0.2% 하락

-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소폭 하락**
 -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94.0만원으로 전월(1,797.67만원)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5개월간 하락세 지속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63만원), 서초구(2,882만원), 용산구(2,549만원), 송파구(2,382만원), 양천구(1,920만원), 광진구(1,869만원), 강동구(1,82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93만원), 도봉구(1,098만원), 중랑구(1,130만원), 강북구(1,13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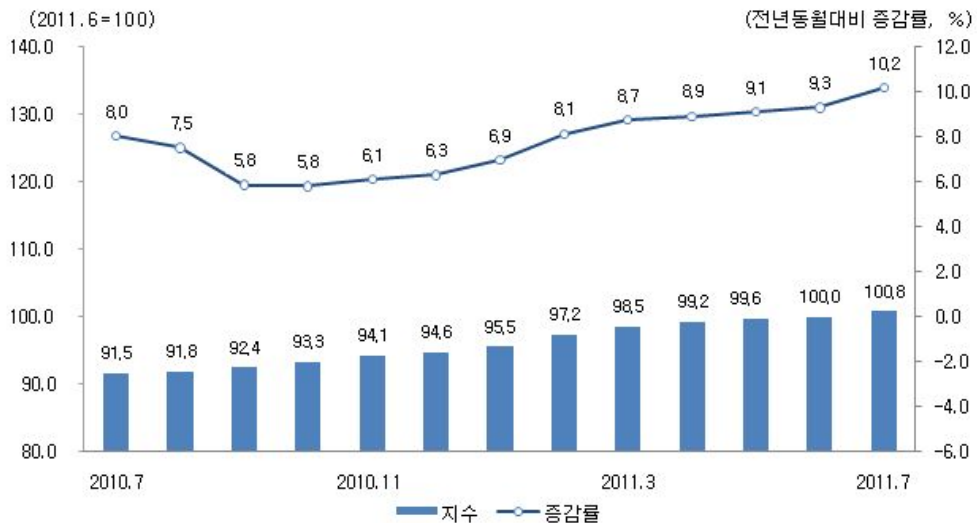
서울의 7월 주택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서울의 7월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 확대

-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전세가격은 각각 전월대비 0.8%, 0.7%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상승세 지속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1.1% 상승한 가운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0.3%, 0.5%로 상승

■ 전국의 7월 주택전세가격은 수도권의 전세선호현상으로 전월대비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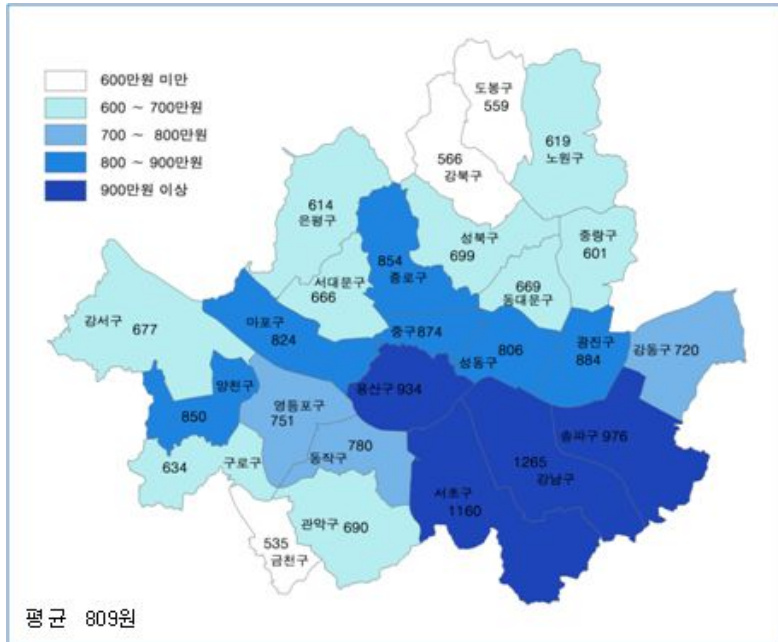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8%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광역시와 기타지방도 각각 전월대비 0.7%, 0.9%로 상승세 지속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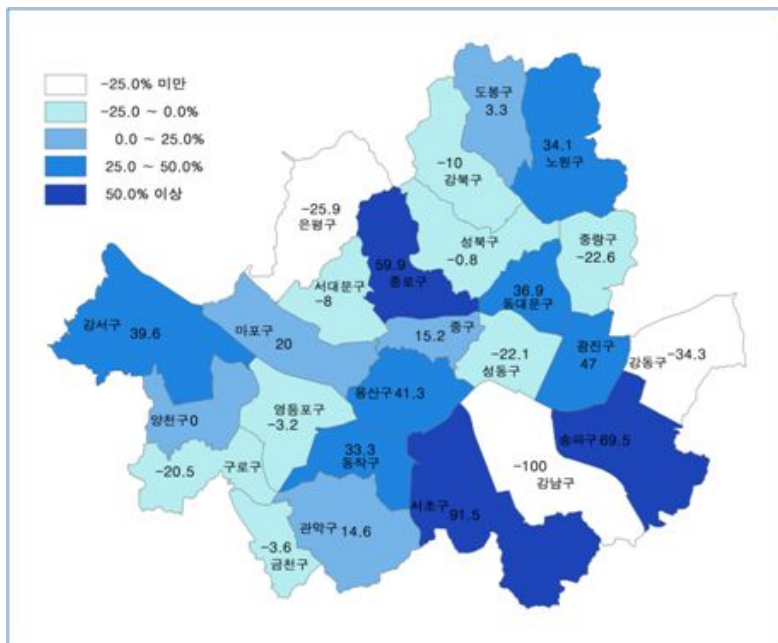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노원구, 중구에서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보이며 전월대비 0.7% 상승**
 - 노원구는 여름방학 학군수요와 가을 이사철을 대비한 수요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세공급 물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월대비 1.4% 상승
 - 중구는 한정된 전세물량에 비해 신혼부부 및 미리 전세를 구하여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0% 상승
- **강남지역은 강동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어 1.0% 상승**
 - 강동구는 보금자리지구 지정의 영향으로 강동구의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를 선호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전월대비 1.9% 상승
 - 강남구는 강남지역 전세 공급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재건축단지와 리모델링 단지의 이주수요와 여름방학 학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8% 상승
-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지속적인 상승세**
 - 서울의 7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08.62만원으로 전월(795.66만원)대비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265만원), 서초구(1,160만원), 송파구(976만원), 용산구(934만원), 광진구(884만원), 중구(874만원), 종로구(854만원), 양천구(850만원), 마포구(82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35만원), 도봉구(559만원), 강북구(566만원), 중랑구(60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의 7월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7월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8.0%로 전월(47.4%)보다 0.6%p 상승하며 지속적인 상승세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8.7%보다 10.7%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11.1%p)보다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50.4%, 강남 46.0%로 강북이 강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북간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상승세 지속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서울의 7월 국고채 전월동월대비 감소

■ 7월 중 국고채 전월대비 상승

- 7월 중 국고채(3년)금리는 유럽 국가채무문제 등 해외요인의 영향으로 월중반 일시 3.68% 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유럽 재정위기 우려 완화 등으로 반등하여 전월대비 0.12% 상승

■ 회사채 금리 전월대비 소폭 상승, CD 금리는 상승세 지속

- 7월 중 회사채(3년) 금리는 전월대비 0.08%p 상승하여 7월 중 4.48%로 마감
- 7월 중 CD(91일) 금리는 전월대비 0.06% 상승하여 7월 중 3.59%로 마감

■ 장 · 단기 금리차는 전월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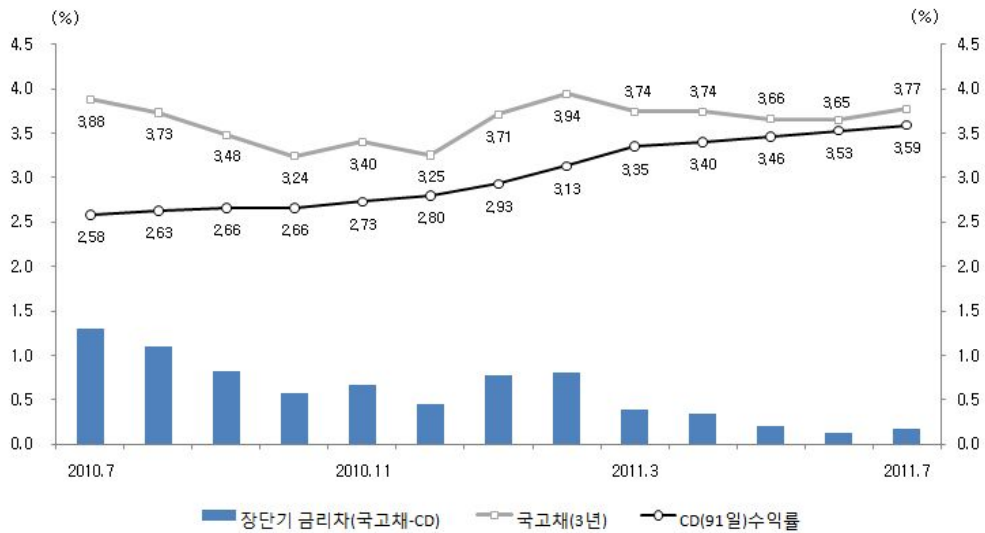
- 7월 중 장 · 단기 금리차는 국고채(장기) 금리의 소폭 상승과 CD(단기)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대비 0.06%p 상승하여 0.18%로 마감

■ KOSPI 지수 전월대비 상승

- 7월 중 코스피는 유럽 국가채무문제 및 미국 정부부채 상한 협상의 전개상황, 국내외 기업실적 발표 등에 따라 2,110 ~ 2,180 사이에서 등락하다가 7월 중으로 2,150.0p로 마감

■ 7월 중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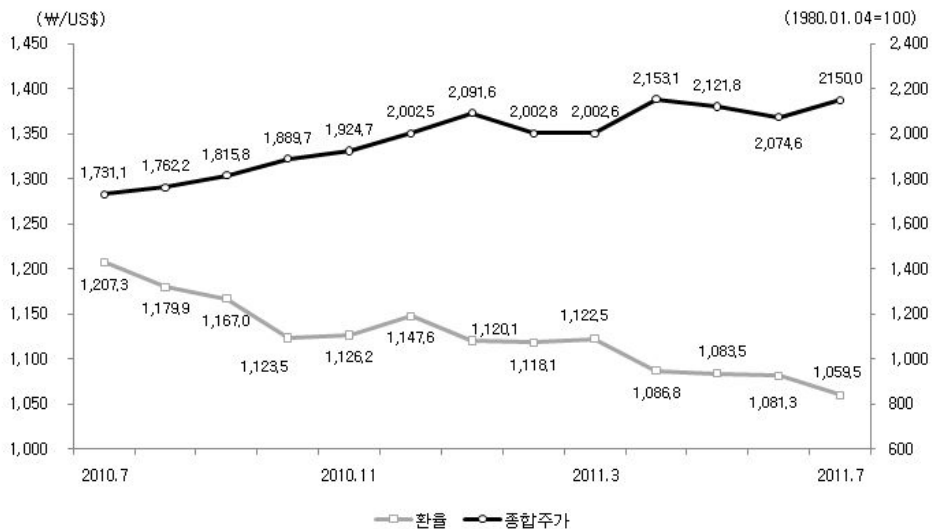
- 7월 중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21.8원 하락하여 7월 중으로 1,059.5원으로 마감



주 : 기간 중 평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주 : 기간 중 평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6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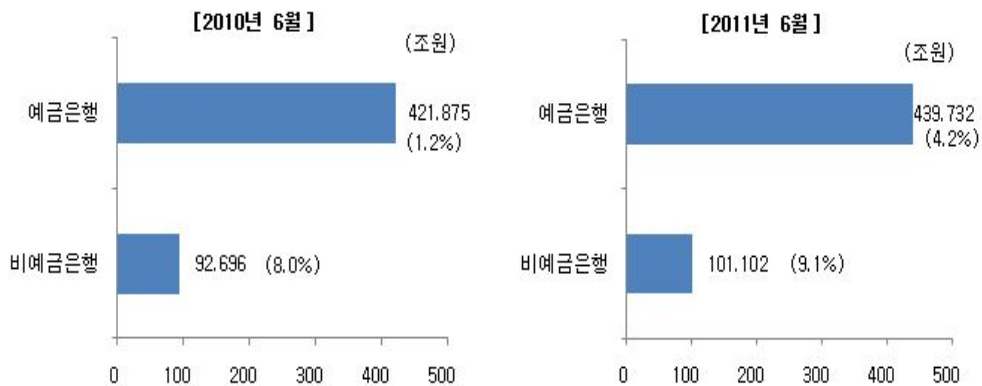
- 6월 중 서울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40조 8,335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5조 2,982억원(0.97%) 감소
- 6월 중 전국의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364조 6,82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 862억원(0.06%) 감소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5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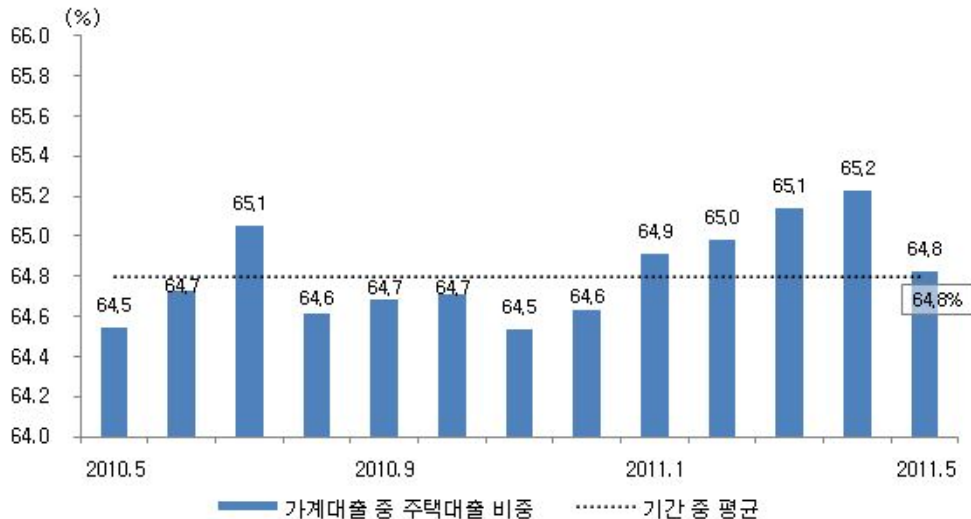
- 5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172조 187억원으로 전월대비 822억원(0.5%)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1조 619억원(64.8%)으로 전년동월대비 4.6%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주택대출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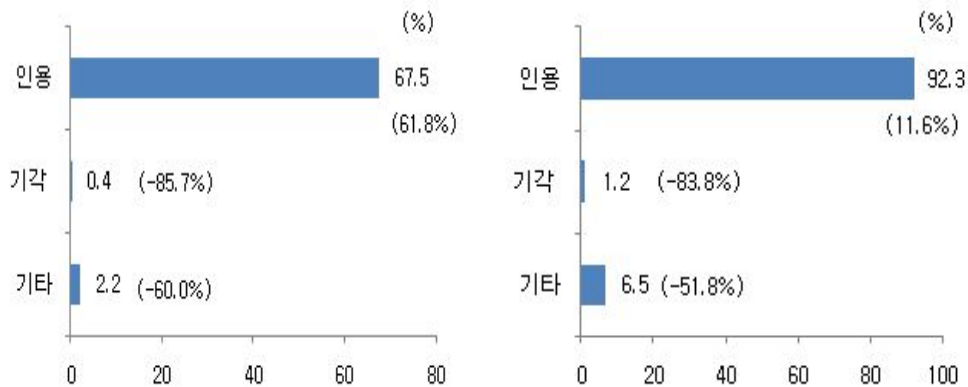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증가

- 7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154명으로 전월대비 6.3%, 전년동월대비 32.0%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0.4%로 전월대비 94.2%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은 1.2%로 전월대비 93.1%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7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7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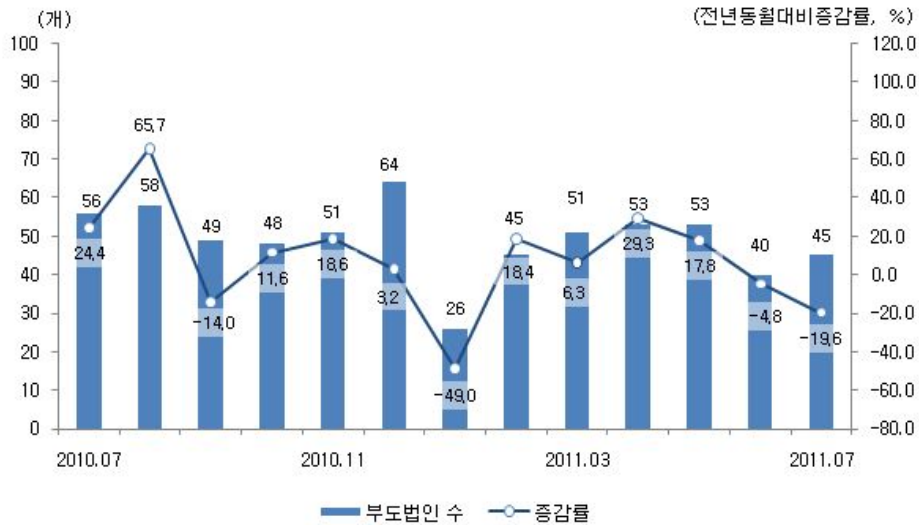
서울의 7월 건설 및 설비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감소,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 신설증가
 - 7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18개로 전월대비 6.3%(28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3.7%(68개) 증가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3.4%(4개) 증가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전월대비 1.8%(5개), 7.4%(121개) 감소
- 서울의 7월 부도업체 수 전월대비 증가,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부도증가
 - 7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5개로 전월대비 12.5%(5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9.6%(11개) 감소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76.9%(10개)증가한 반면,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은 각각 전월대비 20.0%(2개), 12.5%(2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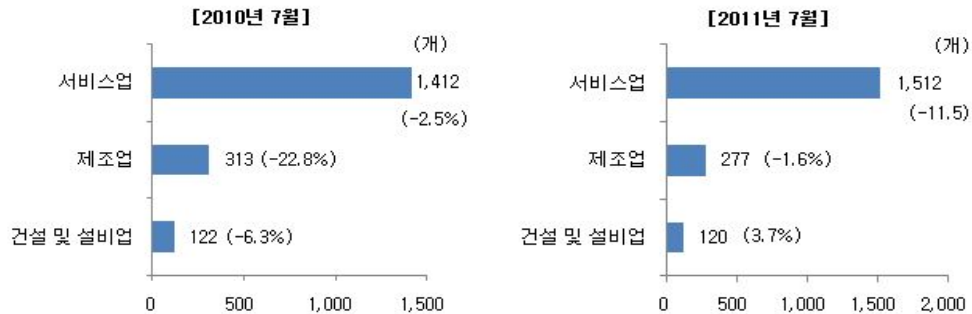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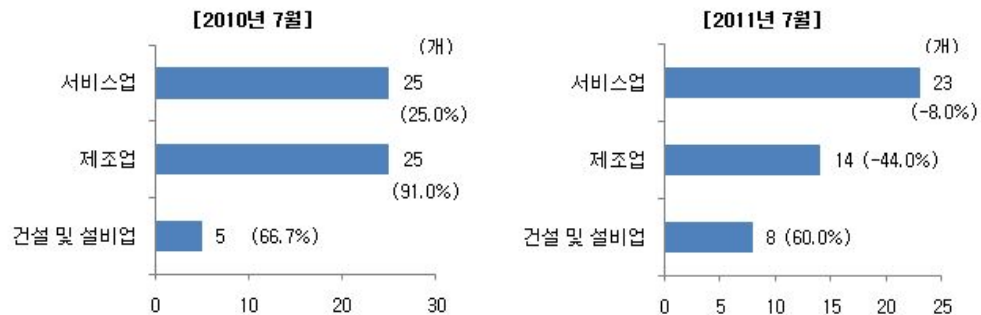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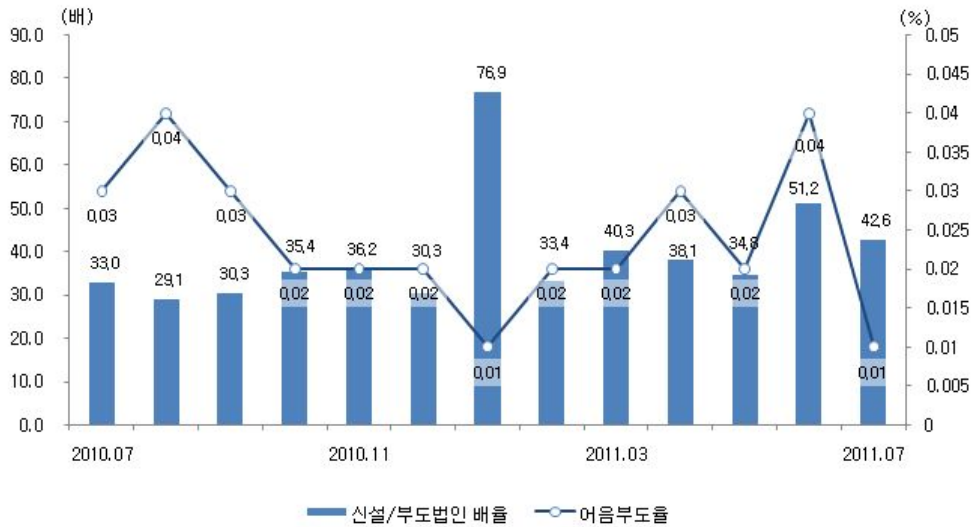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7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보다 하락하였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42.6배로 전월(51.2배)에 비해 감소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서울의 7월 신용보증 공급금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 크게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7월 중 2,561건, 77,3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 29.8%, 보증금액 34.2%,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6.2% 감소
- 한편 전년 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 및 금액은 각각 62.4%, 24.6%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101.3%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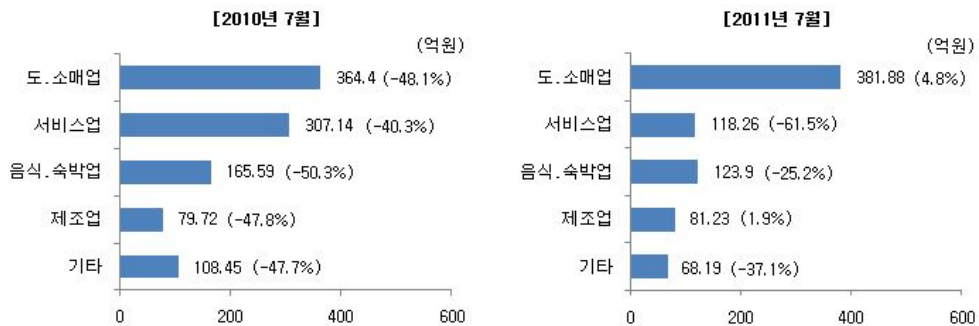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도·소매업 지원 건수 및 금액 비중 상승

- 7월 중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49.4%로 전월(40.1%)대비 9.3%p 증가한 반면, 제조업종에 대한 지원은 10.5%로 전월(14.7%)대비 4.2%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도·소매업종은 43.7%로 전월(38.9%)대비 4.8%p 증가하였으며, 음식·숙박업종은 19.8%로 전월(21.6%)대비 1.8%p 감소

■ 소상공인 지원 건수 및 금액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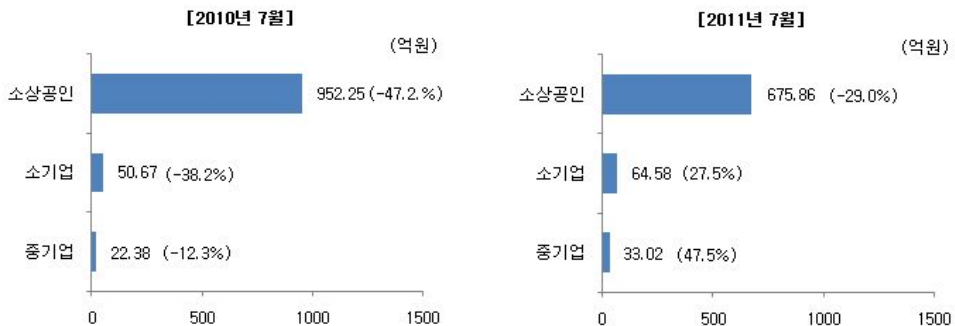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7.4%, 건수기준 94.8%로 전월 대비 각각 9.7%p, 2.4%p 증가
- 한편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 8.4%, 건수기준 3.5%로 전월대비 각각 6.3%p, 1.8%p 감소하였고 중기업 비중도 금액기준으로 4.2%, 건수기준으로는 1.7%로 전월대비 각각 3.4%p, 0.6%p 감소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7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7월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7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1.6% 증가한 55.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한 105.2억 달러 기록
- 7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5.2% 증가한 505.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5.0% 증가한 442.7억 달러 기록

■ 서울의 7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56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철강관 및 철강선, 반도체,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27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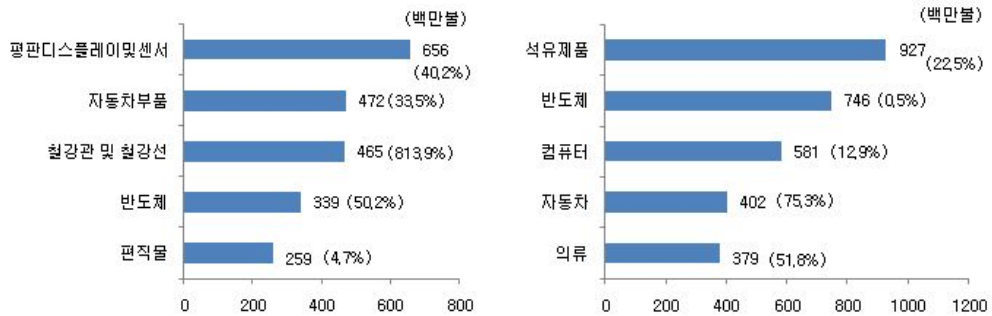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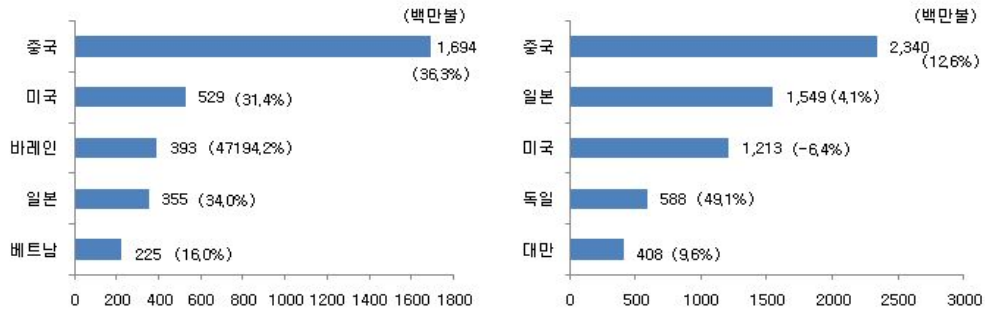
〈그림〉 7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7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7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36.3% 증가한 1,694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바레인, 일본, 베트남 순
- 바레인에 대한 수출이 전월동월대비 47194.2%로 크게 증가하여 393백만불 기록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한 2,340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순
- 독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49.1% 증가하여 588백만불 기록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7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7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표〉 7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528,884	31.4	합계	1,212,513	-6.4
	1	자동차부품	113,978	28.8	항공기 및 부품	111,869	-68.5
	2	무선통신기기	62,708	6.8	육류	103,958	165.0
	3	고무제품	53,576	33.3	기초유분	72,497	71.4
싱가포르		합계	66,540	-2.4	합계	226,897	-5.0
	1	반도체	21,416	18.0	반도체	89,784	-20.1
	2	컴퓨터	4,768	-41.9	컴퓨터	44,563	25.3
	3	기초유분	4,040	172.4	무선통신기기	18,101	-18.9
페루		합계	5,599	12.1	합계	7,044	327.0
	1	철강관 및 철강선	1,171	-	금은 및 백금	5,251	-
	2	고무제품	834	143.4	아연광	479	-
	3	플라스틱 제품	535	181.2	의류	365	-29.1
칠레		합계	13,102	-7.5	합계	63,396	19.2
	1	자동차	4,131	234.1	동제품	34,057	23.7
	2	고무제품	1,729	1.0	육류	12,706	63.2
	3	합성수지	880	87.2	제지원료	4,149	-16
인도		합계	135,155	66.2	합계	258,908	2.9
	1	합성고무	32,558	71.2	석유제품	159,928	-1.8
	2	합성수지	17,988	158.2	천연섬유사	17,791	-36.6
	3	자동차부품	17,536	-6.3	기초유분	16,745	65.3